

4월 26일(월) / 왕상 16-18

▶ **내용요약** : 열왕기상 16장에서는 바아사의 아들 엘라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으나, 시므리의 모반으로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 그러나 시므리 또한 왕이 된지 칠 일 만에 백성들의 반란으로 처참한 최후를 맞이해야 했다. 이후 백성들의 추대로 왕이 된 오므리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어서 그의 아들 아합 왕 시대에 이스라엘의 죄는 극에 달하고 말았다. 이에 1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 재앙을 선포하셨고, 이스라엘에 비와 이슬을 한 방울도 내리지 않으셨다. 이후 18장에서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하여 승리하였다. 이를 통해 엘리야는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임을 증명했다. 또한 하나님의 자비로 이스라엘 땅의 가뭄도 그치게 되었다.

▶ **질문** :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 승리한 선지자는? (18장)

▶ **생각하기** : 엘리야는 아합 왕과 바알 선지자들,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수많은 백성들을 상대로 혼자 싸워야 했다. 때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외롭고 고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세상 속에서 이러한 영적인 외로움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혼자 두지 않으신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내신다.

4월 29일(목) / 왕하 4-6

▶ **내용요약** : 열왕기하 4장에는 엘리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 엘리사는 한 과부의 기름 그릇들을 가득하게 채움으로써 그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그의 두 자녀를 지켜냈다. 또한 잉태하지 못하던 수넵 여인으로 하여금 아들을 낳게 하였을 뿐 아니라, 이후 아이가 병들어 죽었을 때에도 기적을 행하여 그를 다시 살려냈다. 한편 5장에서는 아람의 군대장관인 나아만의 나병을 고쳐주었다. 이로 인해 나아만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으나,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 자신의 탐욕으로 인해 나병환자가 되고 말았다. 6장에서 엘리사는 제자가 실수로 물에 빠뜨린 쇠도끼를 다시 떠오르게 하여 꺼내주었다. 뿐만 아니라 엘리사는 아람 군대의 모든 전략을 파악하여 이스라엘 왕에게 전해주었다. 이에 아람 왕은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 성읍을 에워쌌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시고 돌려보내셨다.

▶ **질문** : 엘리사를 통해 나병을 고친 아람의 군대장관은? (5장)

▶ **생각하기** : 게하시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땅의 것을 더 사랑하였다. 자신의 보화를 하늘이 아닌 땅에 쌓아두고자 했던 것이다.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고 살아가는 소망의 사람이 되도록 은혜를 구하자.

5월 2일(일) / 왕하 13-15

▶ **내용요약** : 열왕기하 13장에서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는 사마리아에서 십칠 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의 아들 요아스 또한 사마리아에서 십육 년간 다스리며 최악의 길로 행하였다. 한편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였던 엘리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숨을 거두었다. 14장에서는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이십구 년간 다스리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한편 이스라엘에서는 여로보암 2세가

4월 27일(화) / 왕상 19-22

▶ **내용요약** :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야는 이세벨을 피해 광야로 도망치던 중, 호렙 산의 한 동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리고는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자신의 후계자로 세웠다. 한편 20장에서는 아람의 벤하닷 왕이 군대를 모아 이스라엘을 공격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은 아람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아합 왕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였다. 이후 21장에서 아합과 이세벨은 나뭇을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음으로써 하나님을 더욱 진노하시게 했다. 결국 22장에서 아합은 길르앗 라못에서 벌어진 아람과의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

▶ **질문** : 이세벨을 피해 도망치던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난 곳은? (19장)

▶ **생각하기** : 아합과 이세벨은 나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 거짓 증인을 세워서 그를 살해했다. 이처럼 탐욕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멀게 한다. 그리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잘못된 판단을 하게 만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숨은 생각까지도 다 헤아리시는 분임을 기억하자. 그리고 탐욕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우리의 판단이 흐려지지 않도록 은혜를 구하자. (더 깊은 묵상을 위해 야고보서 1:13-15을 읽으라)

4월 30일(금) / 왕하 7-9

▶ **내용요약** : 아람 왕 벤하닷은 사마리아를 에워쌌고, 이에 고립된 백성들은 굶주리게 되었다. 그러나 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 이스라엘의 승리와 회복을 예언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의 예언대로 아람군대는 도망을 치게 되었고, 이를 목격한 나병환자들이 성 안의 왕과 백성들에게 소식을 전해주었다. 한편 8장에서 엘리사는 하사엘에게 아람 왕 벤하닷을 대신하여 왕이 될 것을 예언하였는데, 이 또한 그대로 되었다. 이후 9장에서 엘리사는 자신의 제자를 통해 예후에게 기름을 부었다. 이에 백성들은 한 목소리로 예후를 왕으로 추대하였다. 이에 예후는 요람 왕과 이세벨을 죽임으로써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였고, 이스라엘의 악행을 끊고자 노력하였다.

▶ **질문** : 사마리아를 에워쌌던 아람 군대가 물러났다는 소식을 전해준 사람들은 누구인가? (7장)

▶ **생각하기** : 아무리 강한 적이 우리를 에워싸고 공격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눈앞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자.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한 승리의 전리품을 준비하고 계신다.

왕이 되었는데, 사십일 년간 사마리아에서 다스리며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15장에서는 유다 왕 아사랴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었다. 아사랴는 예루살렘에서 오십이 년 동안 다스렸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에는 스가랴, 살롬, 브가히야, 베가 왕이 짧은 통치기간 중에도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을 멸망의 길로 이끌었다. 그들은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우상을 숭배하였고, 서로를 배반하고 죽이기를 반복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대적의 손에 맡기셨다.

4월 28일(수) / 왕하 1-3

▶ **내용요약** : 열왕기하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 아하시야 왕을 책망하셨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아닌 이방의 우상에게 자신에 대한 것을 물었기 때문이었다. 결국 엘리야는 아하시야 왕의 죽음을 예언하였고, 아하시야 왕은 엘리야의 예언대로 숨을 거두고 말았다. 이후 2장에는 엘리야의 승천과 그의 후계자인 엘리사의 사명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다.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회오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그리고 엘리사는 자신이 구한대로 갑절의 영감을 얻어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되었다. 한편 3장에서 이스라엘, 유다, 에돔의 연합군은 모압과의 전쟁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역사하시므로써 승리를 거두게 하셨다.

▶ **질문** : 엘리야의 후계자로서 갑절의 영감을 받은 사람은? (2장)

▶ **생각하기** : 과멸의 길로 향하던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내주셨다. 그리고 그를 통해 그의 후계자인 엘리사를 세우셨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사람을 세우신다. 그리고 그를 통해 또 다른 제자들을 일으키신다. 오늘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자. 그리고 우리를 통해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기를 기도하자.

5월 1일(토) / 왕하 10-12

▶ **내용요약** : 열왕기하 10장에서 예후는 아합의 집에 속한 모든 이들과 아하시야 왕의 형제들, 아합의 나머지 사람들까지 모두 진멸하였다. 그리고 더 나아가 큰 제사를 드리는 척 하면서 바알을 섬기는 모든 이들을 초청한 후, 그들을 모두 한 자리에서 살해하였다. 한편 11장에서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라는 자신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스스로 여왕이 되기 위해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다. 그러나 요아스 왕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건질 수 있었다. 이후 제사장 여호아다는 아달라를 죽이고 일곱 살인 요아스를 왕으로 세웠다. 12장에서 유다 왕 요아스는 40년간 통치하였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러나 여호아다 제사장이 죽자,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서 악을 행하다가 반역으로 죽임을 당했다.

▶ **질문** : 여호아다의 도움으로 일곱 살에 유다 왕이 된 사람은? (11장)

▶ **생각하기** : 이스라엘의 왕이 된 예후는 아합의 사람들 뿐 아니라 바알 숭배자들을 모두 진멸함으로써 악의 뿌리를 뽑아내고자 했다. 매일 반복되는 죄에 넘어지면서도 소극적인 태도로 죄와 싸우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자.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죄와 죄의 습관들을 미워하고, 그것을 뿌리 뽑기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자. 죄와의 싸움은 언제나 적극적이어야 한다.

▶ **질문** :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은? (15장)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되하게 한 느밧의 아들 ()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 **생각하기** : 한 사람 아담의 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처럼, 이스라엘 역대 왕들의 죄는 모든 백성들을 파멸로 이끌었다. 이처럼 죄는 다른 이들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죄를 다스려야 하는 이유이다.